

이선미 Lee Sunme (b.1971)

 @sunme.lee

- 학 력**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과 석사
서울산업대학교(現서울과기대) 금속공예과 학부
- 개 인 전** 2023 오늘을 빛다 (수원문화재단111cm, 수원)
오늘을 빛다 (통인화랑, 서울)
오늘을 빛다 (아트버스 카프, 서울)
2019 숨고르기 (갤러리 coop, 서울)
2018 나..지금..여기.. (갤러리 coop, 서울)
2017 바람무리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갤러리 WE, 서울)
2014 Gabriel's Song (KCC art gallery) (Chicago, USA) (belport, 서울)
2011 The Past Will Remain - able fine art NY (NEW YORK, USA)
2008 스티는 숨을 잡다.. (대안공간 눈, 수원), (UV하우스, 헤이리)
2007 같음.. 가름.. 다름.. (대안공간 눈, 수원)
2005 가려보기를 뜻하는 꼴 만들기.. (조형 갤러리, 서울)
- 초대 / 단체전** 2024 Cartier Le Voyage Recommence HJ Event Seoul Venue 까르띠에 글로벌 하이주얼리행사 (석파정 서울미술관)
투영된 시간 The Projected Time 이선미&유충목 2인전 (MANSION9, 서울)
FLOW, 맨션나인 5주년 특별기획 (MANSION9, 서울)
2023 추풍미담 (화성행궁 유여택)
Révélations(헤벨라시옹)- 그랑팔레에페메르Grana Palais Éphémère (파리, 프랑스)
5월의 작가 (이도청담, 서울)
2019 집적, 시간을 쌓다. 김세중,이선미 2인전 (갤러리피아모, 서울)
2018 문화재야행 (수원문화재단, 수원)
네번째 봄,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 세월호3주기 추모전시 (행궁동커뮤니티 아트센터, 수원)
2017 Light Christmas (AK 갤러리, 수원)
동네야 놀자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6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호2주기 추모전시)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고등동 139-1 - 수원여고 개교80주년 기념전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108개의 의자 (문화공장오산, 오산)
2015 ARTowns (삼정동 폐소각장, 부천)
48 Stunden Neukölln- Art Save the World (gallery UNO Berlin. Germany) 그 외 다수
- 아 트 페 어** 2022 공예트렌드페어 (COEX)
2020 ZHUHAI DESIGN WEEK Dance with light
2019 RAW ROME Art Week- Artists Studio Rome(Rome, Italy)
2018 KIAF (COEX)
2016 Berlin Art Week 2016 (Berlin. Germany)
January-March Show (Berlin,Germany)
2015 Berlin Art Week (Berlin. Germany)
2013 AFFORDABLE ARTFAIR (Hongkong)
2011 NEW YORK ART EXPO (New York, USA)
- 수 상** 2021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금상
2010 크라운해태제과 ECO환경조각대전 최우수상
- 작 품 소 장** 크라운 해태 그룹, AGB,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Louis Roitel Gallery (paris), Helene Bailly Gallery (paris), 이도청담, gallery UNO(Berlin, Germany)

[Artist's Note]

오늘의 삶을 안경알로 빛다

나는 쓰였던 안경알로 작업을 한다.

안경알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어떤 소재가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이만한 재료가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 작업은 안경알의 굴절차이를 이용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되는 형식이지만, 그 내용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경이란 나와 함께하며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있어서 안경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 사람' 이다.

안경알이 가지고 있는 다 다른 굴절률은 각자의 개성이며,

그것을 각각 맞는 자리에 배열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신하였다.

이 작업은 안경알과 빛을 이용해 형태와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이 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관계성'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안경알 하나하나를 각각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간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번 작업의 주제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의 문화는,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긴 시간을 두고 쌓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안에는 공예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보 도자기에서 그 형태를 빌려 오기로 하였다.

이번 작업에서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미래를 담아내고 싶었다.